

“여, 야, 정부가 함께하는 혁신형 SMR 기술 발전”

김영식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김영식입니다. 초선인 제가 왜 이 포럼의 위원장을 맡았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취업한 첫 직장이 한국원자력연구소였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를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속이 되었는데, 원자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의원 중에 이 분야를 가장 잘 알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원욱 과방위원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이 탈원전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여야와 함께, 정부와 함께 새로운 혁신형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을 출범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의미로 여와 야, 정부가 함께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최근 잘 알고 있듯이 반도체 분야 등 과학기술 패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결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과학기술, 고기술의 산물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형 SMR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불거졌던 안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보전할 수 있고, 모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할 것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들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치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과학은 광기와 미신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논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로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요한 합의점을 찾았고, SMR은 결국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 아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포럼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맨발로 직접 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국회의원님, 산업계, 학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F**